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동 지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장애인 주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0%가 장애인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490,406명이 장애인이다. 그러나 이 장애인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일 것이다. 사람들의 편견과 무관심속에 버려지고 감춰진 장애인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장애인의 90% 이상이 후천적장애인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전체의 77.9%가 재활치료를 받아 본 적이 없고 취학아동 중 14%만 교육을 받고 15세 이상 장애인 중 26.7%만 취업하고 그 중 85%가 극빈층에 속해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런 수준의 관심으로는 선진국대 열에는 물론이고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라고 자부하기조차 부끄럽다. 많은 이들이 장애인들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이들이라는 미신적 생각에 빠져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산업재해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비성경적 사고와 태도로 장애인들을 천대하거나 비하시킬 수 없다. 장애인들을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고 시혜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또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 이것은 천대하거나 무관심한 것보다는 나은 것이나 동정심은 도리어 장애인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서 동정해서 한 푼 던져주는 식의 대우가 아니라 정정당한 권리를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해 달라는 것이다. 장애인이 된 것은 자기 책임(선택)이 아닌 다른 차별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 피부색 때문에 차별대우나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없듯이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 대부분이 후천적 장애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들의 장애에 대해 간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게 되면 그리고 재활과 복지에 노력을 하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하는 동정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찾아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위하여 일할 의무를 가진 이들이다. 구약시대에는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선을 보고 행치 않는 자를 악한 자로 저주하셨다.

가장 불리한 입장에 서있는 이들의 권익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권익을 찾는데 앞장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만난 이들 중 50% 이상이 장애인들이었다. 제자들의 사역도 결국 예수님 사역의 연장 선상에서 보아야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저들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처럼 저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역이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려면 언어와 환경이 유사하면서 남다른 성격을 가진 장애인을 땅 끝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중 윤 목사 (서울교회 원로목사)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

4월21일(토) 오후 2시, 신교대교회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교회 비전 2020 운동본부(본부장 : 최광성 장로)는 오는 4월 21일(토)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을 거행한다.

장소는 강원도 인제군 소재 신교대교회이며 이 날 설교는 조원영 목사가 담당하며, 장석남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한다.

이 날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란다.



해군 교육사교회 진중 세례식

-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 대법원 "오정현은 예정합동 목사 아니다"

대법원이 서울 서초동 소재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해 소속 교단인 예정합동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일 갱신위원회 소속 회원 8명이 오 목사와 예정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2학년도 총신대 신대원 편입학 전형 과정에서 팩스 시험을 치러 합격했으며 ▲ 2003년 10월 동서울노회 정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예정합동 교단의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그러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정합동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예정합동 헌법 제15장 1조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또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오 목사는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에서 정한 이 사건 교단(예정합동 교단 - 글쓴이)의 목사가 될 수 없다"라면서 "원심이 오 목사가 총신대 신대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사건은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재차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사랑의 교회는 이번 아니라 불법 건축 문제로도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소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이같은 말로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진리이다.

한국 교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서울교회 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사랑의 교회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하여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4월15일	주일	왕상 5-7		사 8-14	
4월16일	월	왕상 8-9		사 15-26	
4월17일	화	왕상 10-11		사 27-33	
4월18일	수	왕상 12-13		사 34-41	
4월19일	목	왕상 14-16		사 42-49	
4월20일	금	왕상 17-18		사 50-62	
4월21일	토	왕상 19-21		사 63-66, 렘 1-3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송인권 조정옥/홍동기 김광민 권정현/이옥수 감우균/김연화1 최인에 김주엽 박성수 장창수/박혜정3 유근종 김동욱/이수경 김수호 유남식 손명근 김경숙 조명식/이관모/조대선 조응식 유명석 장석남 유 신 청년부 김경희 한길동 김봉배 최현인 무명 2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찬양예배 전 교회 회복 기도회

찬양예배 전 오후 4시 30분부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교회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찬양과 기도 뿐이다. 찬양과 기도는 사탄의 결박을 푸는 가장 큰 무기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새벽기도회

매주 월요일~토요일
새벽 5시 30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 119:148)





보화를 발견한 사람

- 세계적인 한지작가 전광영 집사 -

세계적인 한지작가 전광영 집사의 개인전이 지난 4월 4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삼청동 PKM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WORKS 1975~2018'을 타이틀로 한 이번 전시는 작가의 초



기 작업인 1970년대 추상 평면회화 작품부터 '집합(Aggregation)'시리즈로 대표되는 입체적 회화 신작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

전광영 집사의 작품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의 작품은 세계 곳곳에 전시되어 있고, 특히 뉴욕의 유엔본부 로비에서도 그의 웅장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광영 집사의 최근 작품은 이전 작품들과 달리 흑백의 조화에서 다양한 색(色)으로 화사하게 옷을 갈아입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지만 이같은 색의 변화는 아마도 그의 또 다른 예술세계일 것이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전공하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회화를 전공한 전광영 작가는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미국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초기회화, 10여년 미국생활에서 한국작가로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 바로 한지작업이었다. 작가는 민속박물관에 전시된 선조들이 쓰던 민예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색도 이곳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그는 말한다. 작가는 다양한 노란색이 혼재된 작품 '집합18-JA001(꿈 1)'을 예로들며, "흔기를 채운 처녀가 입었던 노란 저고리가 시작점이었다"고 밝혔다. 약간은 바랜듯, 툭툭다운 노랑 저고리가 작가의 관심을 끌었다. '순수'라

는 단어 외 다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다고 했다. 한지를 치자로 물들여 완성한 작품은 단박하면서도 순수한 열정이 느껴진다. 다른 작품도 모두 직접 천연재료로 염색해 제작했다.

기독교 신앙

4대째인 전광영 집사의 가정은 할머니가 흥천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할머니의 사랑과 기도를 힘입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자신이 있음을 언제 어디서나 고백한다.

이번 전시회를 시작하며 할렐루야 찬양대와 권사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날 예배를 인도한 서명철 목사님은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두셨다. 자기 안에 있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전광영 집사님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

견한 사람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신다. 온갖 인생의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씀하셨다.

교회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고 솔선하여 힘을 보태는 그가 서울교회의 교인이라서 우리의 마음이 한층 위로가 된다.

서울 삼청로 PKM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에서 열리는 7년만의 개인전이기도 하다. 남은 전시 기간 동안 서울교회 성도들은 삼청동의 봄을 만끽하며 전시회를 관람하면 좋을듯 하다.

허숙 권사 (편집부)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장애인주일을 맞아 사랑부(부장 : 이강인 집사)가 준비한다. 찬양(최유현 집사 지도), 중창, 난타(장윤식 집사 지도)를 준비하였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바란다.



동정

■ 수상 : 12교구 오영숙 권사 『우수지도자상』 2018 평창동계올림픽세계미술운영위원회

■ 연주회 : 4교구 백경화 권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당진시립 예술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제 52회 당진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Concert a Theme D'amour』 사랑의 테마 콘서트 5월 31일(목) 오후 7시 30분 후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관람을 원하는 성도는 가브리엘 찬양대에 문의 바란다.

■ 금주의 식사 : 허현숙 권사
권사회 임원일동

서울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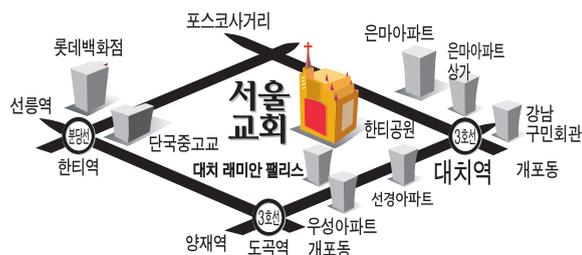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2.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서 불법 세력들이 속히 제거되고 모든 송사가 바르게 진행되어 하루 속히 서울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3. 국내외 정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예배	오전 9시	본당
	II부예배	오전 11시 20분	
	III부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I부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